



##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노사가 윤석열 정부에 요구하자”

2차 중앙교섭, 요구안 설명 ... “임금 하락·물가 폭등, 금속 최임 11,080원으로”

금속노조가 2차 중앙교섭을 열고 노조 통일 요구안과 중앙교섭요구안을 설명했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 사용자협회는 4월 23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2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노조는 2024년 중앙교섭 요구 3개, 통일이유 2개를 설명하고, 2차 중앙교섭을 마쳤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조합비 회계공시, 타임오프 시정지시 등을 통해 노조 활동을 옥죄려는 노조무력화 공세이다” 라면서 “이에 노조는 금속산업 노사관계의 불안 요소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제도 개선 흐름을 노사·노동관계 영역에서 펼치고자 한다” 라고 강조했다.

장창열 위원장은 “사용자 측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긴 안목을 갖고 열린 마음으로 노조 요구안을 귀담아들어 달라”라고 요청했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회장은 “오늘 노조 요구안 설명을 귀담아듣고 이후 사용자협회 워크숍



을 통해서 의견을 모으겠다”라면서 “사용자협회가 원만한 노사관계와 교섭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요구안 설명은 김상민 금속노조 정책실장이 맡았다.

금속노조는 2024년 통일이유로 ▲좋은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노사공동 대정부 요구를 내세웠다. 중앙교섭 요구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 ▲이주노동자 차별 금지 ▲금속산업 최저임금 통상상급 11,080원과 월 통상임금 2,504,080원 중 높은 금액 적용 등을 요구했다.

중앙교섭 첫 번째 요구안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이다.

김상민 정책실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은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들을 짚고, 정부가 노사 노력에 조응하는 책임을 다하도록 대정부 요구 만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요구안 설명을 시작했다.

노조는 지속 가능한 양질의 고용을 확대하는 종합적인 고용안정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이는 취업자와 실업자 간의 경쟁을 완화하고,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사회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중앙교섭 두 번째 요구는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로, 이주노동자 임금차별 해소, 노동조합 활동 보장, 번역지원, 숙식비 공제 금지 등을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김상민 실장은 “올해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 규모를 16만 5천 명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라면서 “현재 우리

나라에 체류하는 미등록 체류자는 40만이 넘는 상황이고, 이들 대부분은 매우 열악한 처우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라고 요구안을 제시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상민 실장은 “이주노동자 임금차별 해소는 정주노동자 조합원과 이주노동자 조합원 사이의 임금차별을 막는 것을 출발선으로 설정했다” 라면서 “이주노동자 처우개선으로 신설조항을 만들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의 번역 요구와 사측이 숙소와 식사 제공 경우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기존 산별협약 제 47조(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이주노동자를 포함할 것을 명시해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 방지, △노동관계법 준수 지도감독, △ 동일한 작업복 지급, 복지후생 시설 공동사용, △ 노동시간과 휴가/휴일 등에 대한 차별 금지 등 기존 사내하청 정주노동자가 받고 있던 권리 보장을 이주노동자에게도 그대로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중앙교섭 세 번째 요구안은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11,080원과 월 통상임금 2,504,080원 중 높은 금액 적용, 적용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이다. 2024년 현재 통상시급 11,000원과 월 통상임금 2,486,000원 중 높은 금액을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적용하고 있다.

노조는 2023년 금속노조 임금수준 실태조사 결과와 2023년 금속노



조 임금인상 결과를 기초로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질임금 하락 만회 분을 참고해 고정급 최저인상분을 250,750원으로 산정했다. 2023년 금속산업 최저임금 통상급 2,253,220원에 250,750원 더하고, 금속산업 최저임금 기준시간 226시간으로 나눠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 요구액을 결정했다.

김상민 실장은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금속노동자 보호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임금 격차를 축소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매년 하향하지 않는 원칙이 있다”라고 인상안을 제시한 사유를 밝혔다.

노조 모든 사업장 교섭 단위가 요구하는 통일요구는 ▲좋은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면제제도 개선 노사공동 대정부 요구 확정 등이다. 노조는 자연 감소 인원 신규채용 등 명문화를 요구한다.

김상민 실장은 “올해 노조는 “금속 산업을 멈출거나, 공격을 중단할 거냐” 라는 질문을 정부한테 던지고, 노사관계 불안 요소로 작용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자체를 바꿔내는 싸움을 임단투와 연계해 진

행하자고 내부 결의를 모았다” 라고 밝혔다.

김상민 실장은 “노사가 국제노동기준이 요청하는 노사자율의 원칙에 입각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개선을 정부에 공동으로 요구하고자 한다” 라고 덧붙였다.

노조 요구안 설명에 이은 교섭 마무리 발언에서 박근형 사용자협의회장은 “올해 중앙교섭 요구안은 예년과 다른 느낌이다” 라면서 “특히 일자리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시대 상황에서 일자리의 양과 질을 모두 보호하고,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여성 등 모든 것을 고려하는 게 가능한지 상당히 고민스럽다” 라고 평가했다

장창열 노조 위원장은 “노사가 중앙교섭을 상당히 오래 해 와서 매너리즘에 빠진 게 아닌지 고민이 된다”라며 “올해 중앙교섭은 노사가 함께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답했다.

3차 중앙교섭은 노조 주관으로 충남 아산 현대엠시트지회 사무실에서 진행한다.